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0월 9일(주일) 제1412호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오전 5시 30분 모든 캠퍼스
유튜브 채널 오전 5시 30분, CGNTV 오전 6시 중계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며 새벽부흥집회를 개최한다.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가 10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를 주제로 오전 5시 30분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여호수아서>를 본문으로 설교한다.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채널은 오전 5시 30분부터, CGNTV는 오전 6시부터 중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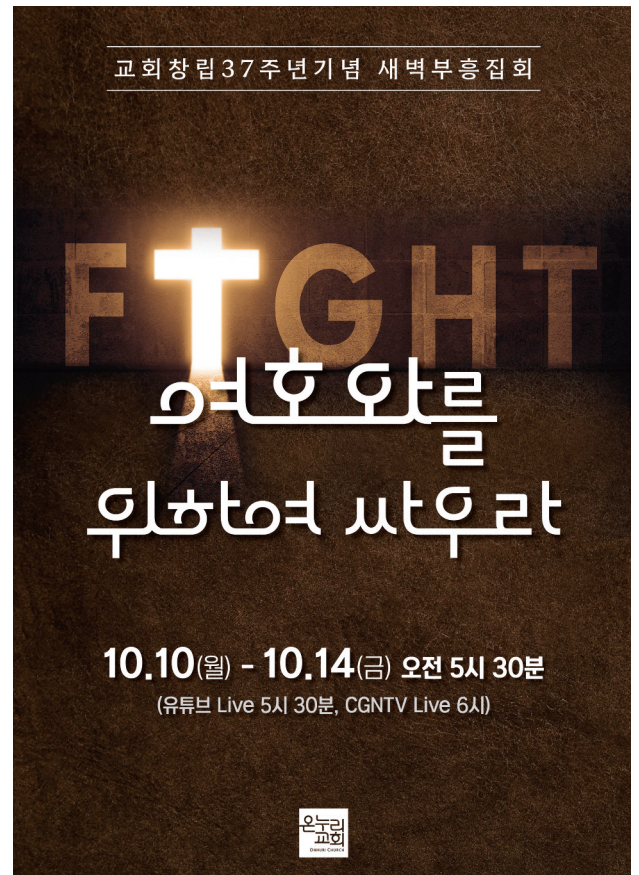
이재훈 담임목사는 10일 ‘담대하라(수 1:1~9)’, 11일 ‘정결하라(수 3:1~7)’, 12일 ‘순종하라(수 5:13~15)’, 13일 ‘도전하라(수 14:6~15)’, 14일 ‘선택하라(수 24:14~25)’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한다.

요일별 중보기도를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와 대학청년’,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을 주제로 중보

기도한다. 특순은 월요일 주찬양찬양사역팀, 화요일 주사랑찬양사역팀, 수요일 주기쁨찬양사역팀, 목요일 대청 연합, 금요일 주영광찬양사역팀이 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가 함께 하는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한계없는 선교, 함께하는 후원

10월 22~23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CGNTV가 ‘한계없는 선교, 함께하는 후원’을 주제로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10월 22일(토요일)과 23일(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누주는 정기후원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CGNTV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CGNTV에서는 정기후원 약정행사와 더불어 CGNTV 해외 지사가

전 세계에서 써 내려가고 있는 선교 열전을 특집다큐멘터리에 담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CGNTV를 후원하고 기도하면 선교지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방송으로 시작된 CGNTV는 ‘미디어 선교사’의 꿈을 꾸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CGNTV가 선교하고 있다. 또 CGNTV가 국

내 최초로 선보인 기독OTT ‘풍당’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 및 보급하면서 또 하나의 귀한 선교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정상건 장로(CGNTV 운영위원)는 “CGNTV는 선교를 위하여 오늘도 도전하고 있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CGNTV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재훈 담임목사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

이재훈 담임목사가 지난 10월 6일(목) 국회의사당 국회6분 앞에서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1인 시위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진평연)’에서 주관한 ‘평등조청 1인 시위 토크콘서트’의 일환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대형교회 목회자가 나선 것은 지난 9월 29일(목) 김운성 목사(영락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성전환을 옹호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사회체제 전복법 독재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헛말)을 들고 1시간 동안 시위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 온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인데, 정작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조차 이 법의 폐해와 실상을 잘 모른다”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현주 기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11월 6일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 캠페인이 11월 6일(주일)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전 세계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낙태 반대 기도운동’이다.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헛말)을 들고, 일자별 기도문을 낭독하며, 평화적으로 침묵기도 시위한다.

이 뜻깊은 기도운동에 온누리교회도 함께한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 봉사를 온누리교회가 담당한다.

기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도 봉사자에게는 ‘10주 태아 발배지’를 제공한다.

문의: 02-3215-3313

10월 비전헌금 ‘다음학교 후원’

10월 8~9일 봉헌하는 10월 비전헌금은 다음학교(탈북자 대안학교)를 후원한다.

다음학교(서초구 마방로 6길 37)는 다음세대를 키워 통일을 준비하는 대안학교다. 다음학교 재학생은 탈북자, 한국인, 한국계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 한반도 재건에 필요한 다음세대와 청소년을 양성하고 있다.

맛있는 말씀 해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라”(마 1:20)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마 1:20).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한다. 마태복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특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25절이 ‘수태고지(Annunciation)’ 본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수태고지(受胎告知)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성육신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유대문화에 나타나는 독특한 결혼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13~20세 이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결혼 전 1년 동안

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의미를 묵상하고 더 순결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정혼법이라는 독특한 약혼을 하게 되어있다. 오늘날 문화에서는 약혼에 해당되지만, 사실 약혼보다는 더 강한 결혼의 합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때 여자의 몸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말이다. 두 사람이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무척 당혹스럽고 두려워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마리아는 끝내 주의 뜻인 줄 알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만, 요셉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보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요셉이 자신이 사랑하던 마리아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봐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 했다고 증언한다(19절). 바로 그때 요셉에게 임한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왜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서있는 세계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와 다소 큰 차이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성적이지만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믿음을 언급할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으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natural)과 초자연적인(supernatural)인 일을 행하는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요셉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때도 있으나 그렇지 못 할 때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

히 신뢰한다는 것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모함과 비방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셉에게 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첫발을 과감하게 내딛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 고도(altitude)를 바꾸면 태도(attitude)가 달라진다고. 단언컨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궤도 수정하라는 뜻임에 틀림없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삶 QT 프리뷰(Preview)

벤엘의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오숙자 성도와 딸을 위해서!

저와 딸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서 편지를 보내봅니다. 저는 수년 전 남편이 먼저 떠나고 딸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데 몸과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겨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해주시십시오.

저는 얼마 전 폐와 신장에 혹이 보여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큰 이상 없이 잘 나오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또 눈과 다리가 불편해 가까운 교회조차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교회에서 온누리미션과 반찬 봉사 등 여러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교회에서 다시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리와 목 통증도 치유해 주시고, 25년째 앓고 있는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육신은 연약하나 영혼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딸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를 다니며 상담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우울증상, 불면, 공포감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딸을 만져주셔서 영·혼·육이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오숙자 성도(남양주온누리교회)

10월 10일~16일
창세기 32:21~35:29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 야곱의 의지를 꺾으시고, 그의 행보를 새롭게 이끄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야곱이 한밤중에 가족과 함께 압박 나무를 건넌 이후 홀로 남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다. 씨름의 결말이 나지 않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이 절룩거리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고, 야곱의 간절한 소원으로 그를 ‘축복’해 주신다. 압박 나무 사건 이후 에서가 다가와 야곱을 부둥켜안으면서 극적인 화해의 장이 펼쳐진다. 야곱은 함께 가자는 에서의 제안을 거절한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형과 헤어진 야곱은 숙곳을 지나 세겜에 이른다.

묵상포인트 1:

야곱은 압박 나무 사건 전후로 극적으로 변화된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그의 삶에

묵상포인트 2: 야곱은 세겜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 벤엘의 서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세겜에 더 잡고 살던 야곱 가정에 좋지 않은 사건이 생긴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폭행과 약탈을 자행하고, 가장인 야곱은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예기치 못한 시련을 통해 다시금 야곱을 다루시고 낮추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야곱 가족이 세겜에 살 때, 디나가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한다.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지만, 디나와 세겜의 결혼은 서로 민족과 신앙이 다르기에 성사되기 어렵다. 세겜이 디나를 더럽힌 일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분노한다.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돌을 결혼시키고 서로 통혼하자고 제안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려는 속셈으로 할례를 내세운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온다. 시므온과 레위의 이러한 행동은 죽기 전에 그들을 저주할 만큼 야곱의 가슴에 사무친 만행이었다.

묵상포인트 3: 벤엘은 20년 전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특별한 장소다. 야곱이 벤엘의 서원을 기억해 지키니,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지켜 주신다. 20년 전 서원을 지키는 야곱, 그리고 벤엘의 서원을 지키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야곱은 벤엘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 식물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새롭게 하라고 명한다. 벤엘에 이른 야곱은 단을 쌓고 ‘엘벤엘’(벤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더니 야곱의 무너진 삶도 회복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스라엘’ 이름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 다시 말씀하신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온다.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고통을 겪던 라헬이 죽는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180세에 죽는다. 이삭의 장례식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해 서로 화해한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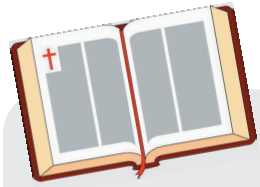
적용을 위한 가이드

▶야곱이 압박 나무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한 일은 생명 다해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같다. 내가 생명 다해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가? 야곱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자.

▶야곱은 디나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낮아진다. 하나님이 나를 겸비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하고 겸손히 순종하자.

▶야곱은 벤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예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헤이해진 나의 신앙을 돌아보자.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만나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약속을 주신 그 자리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 <생명의삶> 편집부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님이 꿈꾸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지난 37년 역사 속에 성령께서 이끄심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사역을 선포하신 바로 그때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94년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2천 선교사와 1만 사역자’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1만 명의 사역자를 배출할 만큼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2018년 온누리교회 누적 파송 선교사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선포했을 때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2003년 사도행전적 교회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멀티사이트 교회를 선포하며 ‘Acts 29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하용조 목사님이 순종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과 상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염려합니다. 이 질문에 주어지는 대부분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신적인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전통으로만 해석해서 문자주의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도 광신적인 신앙과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말씀이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는 말씀이 존재할 수 없고,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조화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어느 해 교회 표어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하셨는데, 그것은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된 교회를 추구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로마서 8:12~17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공동체, 아버지와의 친밀함 누리는 가족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선교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을 받는다면 인간의 잘못된 생각, 자신의 상상, 욕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온 교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요 3:8).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람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영으로 번역합니다. 왜 바람과 영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영의 생명력 있는 역사를 바람이 잘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람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바람은 때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바다를 정화하기도 합니다. 또 바람은 시원함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배들을 움직이게 하고, 많은 꽃들이 피어나도록 씨앗을 날려줍니다. 밭의 이삭을 여물게 하고, 솔방울을 굵게 만듭니다. 바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설명해 주기에 예수님이 바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성령님이 바람처럼 이루십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있거나 행하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한다면 성령님이 바람처럼 우리를 사용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통로 역할을 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교회입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윈 맥머너스가 쓴 <교회론> 책 가운데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문화가 변해감에 따라 교회가 운동이 아니라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기관은 문화를 보존하지만, 운동은 문화를 창조한다. 사라질 문화를 보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수치스런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 당신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생성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움직이며 그가 한때 불었던 곳을 침묵 속

에 남겨두고 지금 새롭게 움직임을 일으키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뜻을 올려서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력입니다. 교회가 기관화되어갈 때 문화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떤 제도나 문화를 보존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형성된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 문화를 지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움직이는 앞선 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며 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뜻을 올려 성령님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 죽이는 훈련공동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육신에 빛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12~13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교회의 양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몸의 행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옛 자아의 영향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옛 습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런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몸의 행실이란 꼭 우리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고방식, 마음의 습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지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영역에서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합의나 정관 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얼마나 죽이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나누는 모든 양육의 목표는 훈련입니다. 교회의 모든 양육은 곧 훈련입니다. 훈련의 목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체육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더 건 강하고 강건하게 하려고 훈련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훈련하는 영적 체육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훈련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고, 거룩한 습관들을 형성함으로 죄의 힘이 더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자기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 노력했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원적인 흐름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교류를 끊고, 수도원에 들어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종교개혁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갖 철저한 규칙을 만들어 지킴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고된 규칙을 지키며 고행을 하는 것이 곧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종교생활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의미로 청도교들은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킵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사용해 ‘죄 죽이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죄로 향했던 마음의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죄로 향했던 마음이 더는 향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죄로 물든 습관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이제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을 ‘죄 죽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양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큐티하고, 일대일 제자양육하고, 여러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양육의 목표는 훈련입니다. 교회는 훈련공동체, 영적 체육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양육과정에 성실하게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 양육과정에 열심히 참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는 성도와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는 가족공동체

둘째,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는 가족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3면에 계속>

나쁜 사상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세계관에 대한 최선의 해독제



이상현 집사
(강남E공동체,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최근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학생의 영상이 유포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비단 교권침해

뿐 아니라 의무는 없고, 인권이 아닌 것을 인권이라 하며,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도 침해한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현실과는 달리 학생을 마치 모범생만 모인 성숙한 집단, 즉 완전무결한 존재로 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대립각 구도로 보는 양상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억압하는 자 VS 억압받는 자 비판이론의 잘못된 이분법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어떤 인간 사회도 권력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상인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을 기반으로 한다. 비판이론가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억압한다고 본다. 망치에게는 모든 것이 못처럼 보이듯, 모든 것이 억압으로 보인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계층에서 세운 모든 제도나 관계, 신념 체계를 억압의 도구로 간주한다. 억압받는 사람의 범주는 인종, 성별, 종교, 소득,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기초해 더 작은 범주로 나눌 수 있고, 오직 개인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아닌지, 즉 집단 정체성에 따라 개인의 특성이 결정된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억압받는 계층은 학생이며, 교사 등 학생을 어떤 식으로든 억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단이 억압하는 계층이다.

세계관을 정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세상에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이다. 비판이론은 이 질문에 대해 권력 계층의 ‘억압’이 바로 그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억압을 식별해 억압받는 집단에게만 자동으로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억압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죄의이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항상 무죄다.

비판이론은 1920~30년대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창했다. 그는 당시 전 세계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주류 국가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부르주아 계급의 세계관이 노동자 계급의 사고를 감염시켜 이들을 억압하게 만드는 ‘해

게모니(권력)’를 당연한 것으로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노동자 계급이 억압의 실체를 깨닫고 봉기하게 만드는 대안적 세계관인 ‘새로운 헤게모니’를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그람시의 영향을 받았던 프랑크푸르트 학파 중에서 다수의 유대인이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고, 컬럼비아대학교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학계와 문화계에 이 사상을 전파했다.

모든 개인을 억압하는 계층과 억압받는 계층

이론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억압하는 특정 권력 계층을 무력을 통해 또 다른 권력 계층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때와 시세를 아는 지혜, ‘세계관을 이해해야 한다’

복음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비판이론보다 훨씬 나은 답을 제공한다. 우선 인간을 보는 관점에서 비판이론은 인간의 정체성이 인종과



“나쁜 사상에 대항하는 방법은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비판이론과 같은 부적절한 세계관에 대한
최선의 해독제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으로 단순히 구분해 집단 정체성을 부여하고, 정체성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 사상의 영향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고로 나타났다. 비단 학생인권조례뿐 아니라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남성이든 여성이든(성별 갈등), 기독교인 있는 중장년층이든(세대 간 갈등), 백인이든(인종 갈등), 이성애자이든(젠더이데올로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억압하는 계층 때문이라는 주장이 비판이론의 결과이다.

프란시스 웨퍼가 “상아탑 속에 있던 사상이 문화가 되고 일반인들의 문화적 상상력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관과 문화는 중요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비판이론이 그 좋은 예이다. 오늘날 같은 극한의 갈등 사회를 사는 데 다수 일반인은 그람시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상아탑 속에서 시작된 이 사상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문화적 상상력을 형성하면서 문화적 담론을 지배하게 되었다. 비록 비판이론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되기는 했지만, 비판이론은 죄가 패배하거나 구원받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죄가 용서되고 회복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비판

성별, 사람마다 각기 다른 정형화된 특징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다. 실제로 한 사람의 인격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이나 특권의 정도를 계량화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정형화된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비판이론은 사람을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으로 축소하고, 계층 간 억압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한다. 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가치 있는 존재인 동시에 각자의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 비판이론은 ‘억압’만이 죄라고 하고, 성경은 타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설계를 위배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여긴다. 비판이론은 억압하는 계층에 속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들이 교정하거나 지도, 책망하는 모든 행위가 죄악이라고 본다. 억압받는 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노, 질투, 증오 등은 자동으로 죄가 아닌 것이 된다. 하지만 성경은 사회적 지위, 인종,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다. 성경에 따르면 억압

이 죄의 하나이지만, 유일한 죄는 아니다.

비판이론은 세상의 문제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답을 제공한다. 비판이론은 억압받는 계층은 죄가 없어서 구원은 회개가 아니라 행동주의를 통한 사회적 해방으로 실현된다고 여긴다. 여기에는 용서나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레슬리 뉴비긴(영국 선교사, 신학자)은 기독교인들의 소명에 대해 “복음이 답이 되는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에 대한 답변은 복음에서 찾을 수 있다. 복음이 답이 되는 질문을 하도록 만들려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곧 세계관을 이해해야 한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때(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잇사갈 지파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 헤브론에 온 다윗 무리의 하나였다. 잇사갈 지파처럼 때와 시세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다. 이것이 곧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소수의 전문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비판이론과 같이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문화적 상상력으로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사상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우리와 다음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야 한다.

11월 1일부터 5주 동안 이어지는 ‘2022 온누리세계관학교 강의’가 때와 시세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답이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많은 성도가 온누리세계관학교를 통해서 문화를 휩쓸고 있는 문제를 회복하고,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분별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사회와 인류에 제공하는 가장 좋은 답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하고, 경쟁적인 세계관에 대항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한다.

나쁜 사상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나은 사상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쁜 사상에 대항할 뿐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인 복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비판이론과 같은 부적절한 세계관에 대한 최선의 해독제는 교회인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2022 온누리세계관학교
일정: 11월 1일~29일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Zoom) 실시간 강의
문의: 02-3215-3637

“초대자를 기쁘게 하라!”

열린새신자예배 10월 23일까지 스태프 모집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천국잔치의 초대자 하나님이다. 바로 그 초대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있다. 매주 주일 오후 7시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열린새신자예배’다. 열린새신자예배는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이자 초대자를 기쁘게 하는 예배다. 매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아주 특별한 초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예배를 섬길 스태프를 10월 23일(주일)까지 모집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열린새신자예배는 말 그대로 새신자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는 예배다. 난생처음 교회에 온 새신자들을 배려해서 주말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 또 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특순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챙기는 매력을 자랑한다. 누구든지 부담 없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열린새신자예배다.

열린새신자예배에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 ‘초대자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대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눅 15:11~32).

또 하나는 전도대상자를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는 전도자를 뜻한다. 소중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마음을 열고, 공동체에 적응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면 초대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이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의 초대자를 기쁘게 하려고 새신자들을 성심껏 섬긴다. 그 섬김과 사랑이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새로운 비전을 세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새신자들이 더는 예배에 스스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교회

로 향하는 새신자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올 초대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초대자들이 전도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예배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대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데려올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초대자를 기쁘게 하라!’를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의 ‘2천 1만 비전’

열린새신자예배 박상민 사역총괄팀장의 눈빛이 반짝였다. 열린새신자예배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는 그의 표정에서 세상에는 없는 기쁨과 도전이 엿볼 수 있었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초대자를 기쁘게 하라!’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또 하나의 ‘2천 1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천 명의 초대자가 1만 명의 새신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새신자를 교회에 초청하기에 앞서 초대자가 먼저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초대자이신 하나님과 소중한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는 성도들이 기쁜 만큼 교회에 초대되는 새신자들이 많고, 그만큼 많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미라 사역지원팀장은 열린새신자예배 그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들이 예배와 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자체를 소개했다. ‘섬기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특별한 예배’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열린새신자예배는 한 마디로 섬기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정말 특별한 예배입니다. 새신자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을 보는 것이 첫 번째 배움이자 성장이고, 함께 섬기는 스태프들에게서 바른 신앙의 배우는 것이 두 번째 배움이자 성장입니다. 열린새신자예배를 섬기면 새신자들과 스태프들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배움이자 성장입니다.”

바로 그 예배, 열린새신자예배를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 박상민 사역총괄팀장이 열린새신자예배에 꼭 필요한 당신을 초청했다.

“성도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가장 좋은 일이 전도인데, 전도를 돕고 행하는 곳이 열린새신자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열린새신자예배를 섬겨 주십시오.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로 섬기기 원하는 성도들은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나눠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상단 QR코드 참고). 신청서에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 지원캠퍼스(서빙고, 양재), 선호분야’ 등을 기록한다. ‘지금까지 어떤 신앙 활동에 참여했었나요?’(받았던 신앙 훈련 혹은 사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스타프로 섬기고자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등의 신앙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모집 분야는 ‘중보 기도, 안내 및 웰컴, 무대 지원(AD, FD, 무대세팅), 디자인, 영상 제작 및 편집, 예배 사역(보컬, 코어), 온라인 사역(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다. 열린새신자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7시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간증

열린새신자예배에도 ‘2천1만비전’이 있다. ‘2천 명의 초대자! 1만 명의 새신자!’가 바로 그것이다.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들은 매주 주일 “초대자를 기쁘게 하라!”는 구호를 외친다.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소중한 이를 초대할 초대자를 기쁘게’ 섬기자는 뜻이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매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일이 기적이다. 삶의 갈등과 문제를 깊이 고민하다 절대자, 근원적 초대자를 찾아온 대상자들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다. 또 한 초대자가 수년을 품고 기도한 전도대상이 있었는데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다가 열린새신자예배에 와서 달라졌다. 그 낮선 찬양에 귀가 열렸고, 새신자 눈높이에 맞춰 전달한 말씀에 반응했다. 그

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다. 이와 같은 기적을 매주 주일 열린새신자예배에서 경험하고 있다.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새신자들이 열린새신자예배 공동체 모임도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기적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초대자의 간절한 권유로 딱 한 번만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던 대상자가 딱 한번 들은 설교에서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고, 그 답을 찾아 매주 주일 열린새신자예배를 드리고 있다. 동료선수에게 참 평안이 있기를 바라며 초청했던 어느 초대자도 그와 함께 열린새신자예배에 동행하고 있다.

사실 소중한 사람을 교회에 초청한 초대자는 전도대상자가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또 다른 부담이 생긴다. 언제, 무엇을, 어

떻게 돕고 안내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다. 바로 그때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들의 역할이 나타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스태프들이 초대자의 눈높이에 맞춘 섬김을 한다. 새신자들의 필요를 공감하고, 최선을 지원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최고로 이루 시기를 간구한다.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혼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실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다. 매주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다. 그래서 나는 매주 열린새신자예배가 기다려진다. / 박혜연 자매(서빙고 열린새신자예배)

그 자체가 기적이자 감격!

청춘
클래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세요”

11월 12일 연애·결혼 세미나 ‘청춘클래스’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신앙을 꼭 결혼 조건으로 뒀야 할까?’,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기는 부끄러운데 어딜 가야 연애할 수 있을까?’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연애와 결혼에 관한 고민이다.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동역자들과 함께 찾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학청년부와 가정사역행가래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연애·결혼 세미나 ‘청춘클래스’(이하 청춘클래스)다. 청춘클래스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유익한 강의와 또래 청년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소다. 오는 11월 12일(토)과 19일(토)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그 아름다운 만남이 이뤄진다. 10월 11일(화)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학청년부 연애·결혼 세미나 ‘청춘클래스’에서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고 있다.

연애와 결혼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연애와 결혼에 관한 막막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청춘클래스에 참가했다가 평생의 짝을 만난 청년들이 있다. 청춘클래스 1기 양희대 형제와 장지영 자매가 올해 7월 하나님의 가정을 꾸렸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

양희대 형제는 점점 나이가 차면서 결혼에 관한 고민이 깊어졌다.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찾고 싶어서 청춘클래스에 참가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애와 결혼에 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나이는 많아지는데, 결혼 준비는 부족한 것 같아서 무엇을 채우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청춘클래스를 찾았습니다. 이성 교제에 관한 강의도 들어보고 싶었고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신앙이 검증된(?) 이성을 만날 기회라고 여겼고요(웃음).”

장지영 자매도 같은 고민이 있었다. 연애와 결혼을 떠올리면 막막하기만 한 그 마음을 해결하고 싶었고,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에 대해 듣고 배우고 싶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강의는 처음이어서 궁금하기도 했고,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양희대 형제와 장지영 자매는 청춘클래스 강의와 조별 나눔에서 사랑의 자세를 배웠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요일 4:7)라는 말씀을 주제로 한 강의가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조별 나눔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연애의 장단점 등을 알게 되었고요. 흘러가는 대로 되는 줄 알았던 연애와 결혼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희대 형제와 장지영 자매는 청춘클래스에서 배우자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

“청춘클래스에서 배우자도 만나고, 하나님도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연애와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 곳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모른다

정요한 형제와 성스런 자매도 청춘클래스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났다. 올해 4월 진행된 청춘클래스 2기에서 만난 두 사람은 내년 1월 결혼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정요한 형제는 호기심에 참가한 청춘클래스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연인을 만났다.

“저는 청춘클래스에 호기심으로 참가했습니다. 집에서 청춘클래스가 열리는 장소까지 거리가 꽤 멀어서 갈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혹시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거리가 멀고, 귀찮다고 청춘클래스 참가를 포기했다면 아내 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웃음).”

성스런 자매는 2년 동안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다. 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청춘클래스에 참가했다.

“저는 지금까지 크리스천과 연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행복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

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과연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정말 만날 수는 있는지 고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청춘클래스 광고를 보고 그곳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짝을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참가했습니다.”

정요한 형제와 성스런 자매 모두 청춘클래스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개그맨 오지현, 박상미 부부의 강의를 꼽았다.

“개그맨 오지현, 박상미 부부의 강의를 들으면서 알콩달콩한 부부 생활을 꿈꿨습니다. 박상미 자매님이 오지현 형제님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들으면서 저희도 결혼에 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요한 형제와 성스런 자매가 좋은 인연을 찾은 청년들에게 청춘클래스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연애와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청춘클래스에 참가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대학청년부 연애·결혼 세미나 ‘청춘클래스’는 11월 12일(토)과 11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10월 11일(화)까지 대학청년부 온라인 주보에 첨부된 네이버폼 또는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cafe.naver.com/youthclass)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식식 제공)이다.

청춘클래스 3기에서는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장) ‘기독교적 올바른 연애와 교혼’, 책 읽는사자(사자그라운드 대표) ‘크리스천의 연애 비법’, 이정선 사모(이재훈 담임목사 사모) ‘좋은 배우자의 조건’을 주제로 강의한다. 가수 자두, 부부 찬양사역자 달빛마을, CCM 가수 김복유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탁월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소통합시다!”

줄임말 시대의 올바른 세대 간 소통문화에 관하여

점심시간을 앞둔 한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오간 대화다.

A: “머선129?”
B: “점메추?”
C: “짹개”
A: “군썩, 완내스”
B: “박박!”
C: “난 갑통알”

이게 한국어인지, 동남아 말인지, 아프리카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내용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다. ‘머선129?’는 ‘무슨 일이야?’, ‘점메추’는 ‘점심메뉴 추천해 봐’, ‘짹개’는 ‘자장면’, ‘군썩, 완내스’는 ‘군침이 썩 도는데, 완전 내 스타일’, ‘박박’은 ‘대박’, ‘난 갑통알’은 ‘갑자기 통장을 보니 난 알바 가야겠다’는 뜻이다. 요즘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서는 SNS 채팅에서나 가끔 쓰던 줄임말을 일상 대화에서도 망설임 없이 쓰고 있다.

그렇잖아도 소통이 안 되는 기성세대는 그들과 대화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한국말인데 외국어처럼 통번역이 필요하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도 도무지 못 알아들을 내용이다. 길게 말하기가 귀찮은 건지, 줄임말이 멋있어 보여 그러는 건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모나 어른들이 훈계조로 길게 보내는 문자는 끝까지 읽지도 않거나 완전 문화로 치부한다.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1980년~2010년 출생한 세대)는 구구한 설명을 싫어한다. 이들 다음세대인 알파세대(2010년~202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디지털 네이티브들)는 말할 것도 없다.

MZ세대와의 언어 차이는 공감과 소통의 부재로 이어진다. 실제 2021년 인크루트 조사에서 세대 간 공감대와 문화 차이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56.5%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세대별로는 Z세대에서 “경험 있다”고 밝힌 비율이 69.2%로 가장 높았는데, 다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즘은 소유보다 공유의 개념이 강해져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쪼개서 판매하는 문화가 대세다. 대표적인 게 NFT(대체 불가능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개념이다. 미술과 음악, 영상 콘텐츠, 부동산 시장까지 확산되어 있다. 방송 콘텐츠도 유튜브 영향을 받아 짤방(잘림 방)란 뜻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 또는 그림) 위주로 편집되고, 쇼츠(Shorts) 영상도 몇 십 초, 몇 초 분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기록도 콘텐츠도 은혜 위주보다 짧으면서 감동과 재미가 함께 있어야 눈길이 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고 줄임말이 좋다거나 어른들도 배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바른말 쓰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말에는 영혼과 정신,
에너지와 영향력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에는 영혼과 정신, 에너지와 영향력이 담겨 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국어는 곧 그 민족의 정신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민족혼을 죽이려고 우리말 말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도 기발한 신조어
생산으로 다른 세대와
배타적인 문화와 단절을
만들기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소망한다.”

살정책을 썼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가 한글을 쓰지 못하게 막은 다음 조선어학회 학자 33명을 체포한 사건이다. 16명이 내란죄로 투옥되고 고문 끝에 두 명이 옥사했다. 주시경 선생 사후에 그 뜻을 이어받은 후배들이 한국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목숨까지 바쳤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 셰익스피어에 대해 칼라일이 “식민지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은 객기라기보다 그만큼 훌륭한 언어로 국민들의 정신세계에 자양분을 불어넣은 공로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글은 소중한 민족 자산이다. 의지적으로 바른 말을 쓰도록 노력하고 지켜야 할 유산이다.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소리언어’(Verbal Language)와 ‘비소리언어’(Nonverbal Language)로 구분한다. 어찌 보면 표정이나 문구, 몸짓같은 비소리언어가 소리언어보다 소통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맞춤법에 신경 써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글을 쓰면 좋은데, 발음하는 소리 언어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TV 방송을 보면 예능은 물론이고, 예술문화 프로그램까지 아나운서가 아닌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순발력이 있어서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올바른 발음이나 맞춤법을 의식하기보다 재미있는 쪽으로 표현하다 보니 듣기 거부할 때가 있다. 한번은 라디오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과도한 외래어 사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외국어) 위반 권고에 걸린 경우도 있었다.

“예. 쵸이 아닙니다. 프리가 아니예요... 그러면서도 보내주시는 여러분, 썬유베리감사 드리고요. 모르고 보내는 분들은 썬리베리죄송 드리겠습니다... 저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은 분들... 인터랙티브한 그런 썬방향으로 컨버세이션 할 수

있는...”

외국어와 외래어의 과도한 사용은 특히 흡소핑 호스트들 간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은 매스미디어보다 1인 미디어가 대세다보니 통제하는 기관이나 사람도 없다. 그냥 편한대로 마이크를 잡는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방송인, 강사, 목회자들은 특히 발음과 말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투리는 원래 타고난 것이니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중모음이나 대표음 정도는 듣는 사람들이 거슬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빠도 발음이 정확하면 사람이 있어 보인다.

**한글은 한민족의 글이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크고 올바른 글**

세종 25년(1443년) 창제되고 3년 뒤 반포된 훈민정음(訓民正音)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다. 훈민정음이 1908년경 주시경 선생에 의해 ‘한글’로 불리기 시작했다. 한 글은 ‘한민족의 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 크고 올바른 글’이란 뜻이다. 소리글자에 속하며, 배우기 쉽고 읽고 쓰기에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자(漢字)를 배우기 힘들었던 백성들의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 임금이 직접 글자를 만든 예는 인류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 양반들은 한글을 여자들이나 배우는 언문(諺文)이라며 업신여겼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궁중의 여인들에게도 모두 훈민정음을 익히도록 하고, 자신도 조정의 대신과 기관에 훈민정음으로 글을 내리기도 하면서 점차 민간에 퍼져 나갔다.

권위와 전통을 상징하는 한자 교육은 계속되어 왔다. 1960년대 초에 태어난 나 역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집에서 천자문을 배웠다. 경주김씨 종갓집 장녀로 태어난 덕에 지필묵(紙筆墨; 종이, 붓, 먹)을 사용해 서예도 배웠다.

1980년대 후반 방송사에 입사했는데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는 일이 잦았다. 주요 인물들 이름에는 반드시 괄호로 한자를 넣어야 했고, 일간지들도 한자가 잔뜩 들어간 세로쓰기를 오래도록 고집했다. 순 한글로 가로쓰기를 하는 한겨레신문에 대해 “신문 같지 않다, 기사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난하다가 결국 모든 신문이 한글에 가로쓰기를 따라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자교육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뜻이 애매할 때는 한자나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글씨체를 바로 잡는데도 효과가 있다. 그런데 모국어가 한자인 중국도 한자의 글자 수가 많고 어려워서 간자체를 쓴지 수십 년이 되었다.

Z세대 신조어로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말이 있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의 멘토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반 사원이 선배나 고위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활한 소통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고, 젊은 감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지향하는 신조어라고 한다.

교회 내에서도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도 기발한 신조어 생산으로 다른 세대와 배타적인 문화와 단절을 만들기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2022년 한글날을 맞아 소망한다.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칼럼니스트)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은사의 핵심은 하나 됨!

“은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제 은사가 무엇이라고 묻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은사’란 영어로 ‘Gift’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은사는 왕이 내린 선물을 뜻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은사’ (恩賜)라고 부른다.

성경에 은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은사를 설명하고자 한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고전 12:4).

성경은 은사가 다양하다고 말한다.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한다(고전 12:8~10).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 다. 그 이유는 은사와 직분이 교회를 분열시키

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은사의 핵심은 하나 됨이다. 내가 행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다. 아무리 귀한 은사라고 해도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

없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은사가 많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은사들이 포함하는 개념 중에 ‘달란트’가 있다. ‘재능’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자기 소개란에 특기라고 쓰는 것이 바로 달란트다. 어릴

달라서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달란트가 작다고 해서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달란트가 은사가 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려고 사용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크고 작음의 문제가 더는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를 치지 못해도, 차세대 찬양팀에서 건반 연주를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다. 이런 은사는 개발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배움을 통해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은사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은사를 믿음과 연결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키워가는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배행삼 목사
(요셉청년부)

* 질문이나 고민
보내실 곳:
joo@onnuri.org

은사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더 키워가는 청년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고전 12:11).

성경은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은사 자체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은사가

때부터 두드러지게 잘하거나 남들보다 내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들이다.

오늘 질문은 달란트를 의미하는 것 같다. 자신의 달란트를 찾는 게 쉽지 않다. 나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있는 것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쓰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크기가 모두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더 깊은 하나 됨을 위한 ‘성숙한 직면’

회피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 회피성이 높게 형성되면 문제에 직면해서 견디고 이겨내는 경험이 부족하게 된다. 대인관계에서 회피성이 높으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갈등의 상황을 피하는 것을 생활방식으로 택하면서 살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서로 다른 의견이나 관계의 긴장 상황을 부딪쳐 보고, 긴장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회피하지 않고 표현하며 상황에 성숙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자기의 이야기가 수용되지 않고 거절될지라도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부딪쳐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결혼생활에서 회피를 습관적으로 하면 부부는 심각한 단절과 불행감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관계에서 회피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침묵’이다. 입을 닫고 자신의 말을 전혀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 입을 닫음으로 상대와 자신의 마음 사이에 두꺼운 벽을 세운다.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하나 된다고 느끼는 ‘연결감’이다. 부부가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물론 결혼생활에서 늘 행복감과 부부가 연결되는 깊은 연합의 감정을 경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입을 닫아버리고, 상황을 회피하며, 심리적 철수를 한다면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친밀의 기회를 놓

친다. 부부가 이전보다 깊은 하나 됨과 연결감을 경험하는 계기는 큰 갈등을 잘 극복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함께 극복한 이후 경험하는 부부의 하나 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부는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결혼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피하고 도피하는 습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적절하게 직면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회피가 습관이 된 사람이라면 관계의 불편감이 예상될 때 심리적 철수를 미리 준비한다. 이미 익숙해진 삶의 행동 방식이기 때문이다.

만일 늘 회피하는 행동 패턴을 취하며 살아왔다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원인을 발견했을 때 큰 깨달음을 얻는다. 만일 자신의 역기능적 행동의 원인을 알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비교적 쉽게 시도할 수 있다. 가장 답답한 것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표면적 행동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을 때다. 자신의 성장과정을 돌아보면서, 특히 원가정에서의 관계와 기억된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면 현재 느끼는 느낌과 행동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회피가 습관이 된 사람이라면 그 배경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린 시절 가정에서 가족들이 주로 취했던 행동이 관계의 회피였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서도 회피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입을

굳게 닫아 버리는 심리적 회피나 심리적 철수를 택하는 성향이라면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한 탐색과 직면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이러한 성향이라면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여전히 아주 많다는 생각으로 대해야 한다. 결혼 연차에 상관없이 배우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부, 배우자의 과거 성장 역사에 대해서 자주 대화하며 궁금해 하는 부부라면 부부의 긍정성이 높은 부부다. 부부는 서로에게 좋은 심리적 치료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로 회피했던 배우자라도 더 이상은 갈등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부부가 서로 심어줄 수 있다. 늘 관계에서 도망쳤던 배우자에게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대화할 수 있다고 다독여 주는 작업이 수반된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필자에게도 결혼 초 갈등이 있었을 때 늘 회피했었던 기억이 있다. 입을 닫아 버리고 마음의 깊은 내면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런 반응이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회피하는 배경과 원인에 대한 생각을 결혼 초기에는 깊게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어린 시절 집안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회피하는 필자의 현재 행동이 이해되었다. 현재 나의 모습이 과거 부모님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린 시절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자주 취했던 행동양식이 회피였다. 무의식중에 필자의 내면에 회피가 자리 잡았다. 회피했던

과거를 보면서 현재의 행동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관계의 갈등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양하다. 회피, 기다림, 인내, 직면, 대화, 분노, 자리를 떠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은 줄여가고, 부부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 취해 서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서로 인내하고, 성숙하게 대화하며 부드럽게 직면하는 것이다. 회피만 주로 취했던 배우자라면 성숙하게 직면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결혼 초기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회피를 택했지만, 성장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는 행동의 변화를 주는 노력을 했다. 입을 꼭 닫거나 회피하지 않고, 관계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말을 하고, 배우자의 말을 들어보는 노력을 하면서 회피하는 횟수가 줄었다. 만일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입과 마음을 닫고 심리적 회피를 취했었다면,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혹은 회피를 줄여가며 부부 갈등이라는 불편한 자리에도 머물러 보며 성숙하고 부드러운 직면을 통해 더 깊은 부부의 하나 됨을 경험하기를 추천한다(음 10:1).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동역, 순교, 그리고 용서

신안군 임자도 ‘임자진리교회’의 순교와 용서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릿 대표)

‘섬’의 사전적 정의는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다. 두 발로만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섬이 아니다.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길이 열리거나 보이는 곳이라면 섬이 아니다. 하지만 더는 갈 수 없다는 현실에서 돌아서지 않고, 새로운 앞(깨달음)을 만난다면 새 길(벉길과 하늘 길)이 열리고, 그 새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섬’이다.

섬에 도착했다는 말은 누군가의 얹이 있고, 그 길을 따라왔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싶다. 섬이 가진 이런 점은 예수님의 복음과 닮았다. 복음은 인생이 가진 철학과 수고, 헌신과 고행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앞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길이다. 우리는 열려진 새 길을 따라 간 따름이들이며, 그곳에서 자유를 누린다(요 8:23).

이번에 나들이 떠날 곳은 ‘임자진리교회’다. 이름에 섬의 명칭이 있다. 바로 임자도다. 광주에서 90km, 목포와의 거리는 66.6km 떨어져 있다. 신안군 지도읍 점암 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20분도 안 되어 임자도 진리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다. 지금은 점암과 진리가 두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점암-수도-진리) 육로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2021년 개통). 이제 벉길이 사라진 섬이라고 할 수 있다. 섬교회 중에서 조금 더 쉽게 찾고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임자진리교회는 임자도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다.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에 의해 설립된 첫 개척교회이기도 하다. 문준경 전도사는 신학교 시절 첫 교회사역지인 임자도에서 이관일과 이관성 형제를 만났다. 서울과 임자도를 오가며 사역을 감당했던 문준경 전도사의 열정과 가르침이 두 형제에게

견고한 신앙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이웃들을 전도하며 교회의 기초를 마련했다. 두 형제는 문준경 전도사와 한 팀이 되어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다. 온전한 동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당시 신학교는 일정 기간 사역하고 또 일정 기간 수업을 이어가는 형태였기에 문준경 전도사는 온전히 교회사역에만 매달릴 수 없었다. 교회는 이들 형제와의 동역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었다. 동역의 가치로 세워진 교회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교회가 바로 임자진리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요, 관계의 장이다. 동역 없이는 결코 교회일 수 없다.

임자진리교회는 1950년 6.25전쟁 당시 공산좌익세력에게 교회를 빼앗겼다. 교회를 잃어버렸다고 예배를 멈출 수 없었던 성도들은 밀실기도회를 하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 행위가 발각되었고, 이관일과 이관성 가족 13명을 포함한 임자진리교회 성도 48명이 총칼에 쓰러지고, 손발이 묶여 갯벌에 내동댕이쳐졌다. 무엇보다 처참한 것은 성도들을 미리 파놓은 백산모래구덩이에 던져 넣고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이들을 생매장했다.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해 교회가 전멸했다. 폭력과 핍박은 힘이 있는 듯 보였고, 신앙은 패배한 듯 보였다. 하지만 교회는 전멸이 아닌 소생의 길을 걷고 있었다. 성도 48명의 죽음은 전멸이 아닌 순교였다. 신앙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임자진리교회는 죽음으로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 순교로 빛을 비추는 교회로 오늘도 임자도에서 생동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

임자진리교회 순교 사건은 얼굴을 전혀 모르는 타인이나 외지인이 아니라 가족 같은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 공산좌익세력이 힘을 잃고 국군이 다시 임자도를 되찾았을 때 피의 보복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임자도는 달랐다. 국군과



신안군 임자도의 첫교회 ‘임자진리교회’.

함께 임자도에 들어온 순교자의 가족 이인재가 원수였던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용서했다. 그가 임자진리교회의 교역자가 되어 섬마을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영과 육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다. 그의 용서와 사랑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성도들과 마음을 합해서 3대를 이어 같은 교회의 성실한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 그렇게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되었다.

동역, 순교,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회자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임자진리교회를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가치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임자진리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성균 담임목사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임자진리교회를 더욱 찾게 만든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위에 서 있습니다.”

두란노 신간

신앙의 눈으로 명작 보기



〈렘브란트는 바람 속에 있다〉
러스 램지 | 두란노 | 24,000원

미술관에 가면 ‘이 작품은 무슨 의미일까?’,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을까?’ 궁금할 때가 있다. 그때 작품을 잘 설명해줄 도슨트(docent,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가 필요하다. 도슨트의 설명을 듣다 보면 그 작품에 숨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도슨트만 만난다면 작품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이 책 한 권이 열 도슨트 안 부럽다. 책 〈렘브란트는 바람 속에 있다〉는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빈센트 반 고흐, 에드워드 호퍼 등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미술가 9인의 작품을 미술사적, 철학적, 신학적으로 해석했다. 유명한 미술가들의 삶과 작품에 숨은 이야기를 풍성하고 재미있게 분석했다.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이 세상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하

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감정을 일깨워준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오감을 깨우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것이 예술가가 공동체에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선물이다.”

신앙의 눈으로 미술 명작을 해석하고, 삶과 복음을 한층 깊이 이해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기독 OTT ‘풍당’ 콘텐츠

청년 리더들을 위한 12인의 조언!



그 첫 순서인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조언을 이재현 대표(NPO스쿨)가 했다. 이재현 대표는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 해결과 좋은 의사결정 방법, 활력 있는 공동체 만들기, 건강한 공동체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현 대표는 가치가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이유로 공감성 부족을 꼽았다.

“인간의 의사결정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정말 옳다고 확신하는 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쫓고, 공동체의 의를 모아갈 때 좋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쳐있는 청년 리더들에게 이 콘텐츠를 추천한다.

기독 OTT ‘풍당’에서 청년 리더들을 위한 콘텐츠 ‘영리한 클래스’를 선보인다. 영리한 클래스는 청년 리더들을 위한 콘텐츠다. ‘세계관 훈련’, ‘영성 훈련’, ‘공동체 훈련’, ‘생활 훈련’ 등을 주제로 12인의 크리스천 리더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담았다.



두란노해외선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주님만 의지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미래선교전략컨퍼런스 및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내다 봤다.

지난 10월 4일(화)과 5일(수)에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미래선교전략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선교학자,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속 선교사, 온누리교회 리더십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선교전략컨퍼런스에서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지난 30년 평가, 시대적 선교 과제,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한종희 목사(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는 “시대적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지속가능하고, 재생산하는 예배공동체 개척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10월 5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을

에서 드린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감사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한종희 목사, 선교사 등 3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구성원 모두가 주님이 주신 위로를 누리고, 믿음으로 회복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선교에 더욱 헌신하자”고 축복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22 세계관학교 개강

11월 1~29일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Zoom)

‘2022 세계관학교’가 개강한다.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2022 세계관학교에서는 조준목 목사(온누리교회) ‘세계관이란’, 류현모 교수(서울대) ‘세계관 비교’, 정운오 장로(서울대명예교수) ‘세

계관과 소비주의’, 신무한 장로(연세대) ‘세계관과 과학주의’, 최도성 장로(한동대 총장) ‘세계관으로 살 아내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전화(02-3215-3637)로 하면 된다. 아이스쿨 1학점이 부여된다. 회비 무료.

문의: 02-3215-3637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총상금 1천만 원, 11월 6일까지 접수

CGNTV가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2022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이 11월 6일(일)까지 이어진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은 영상 콘텐츠와 기타부문(웹툰이나 웹 소설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1월 6일까지 지원서, 목회자 추천서, PPT를 제출하면 된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 최종 PT를 실시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1팀(영상 부문), 최우수상 2팀(각 부문별 1팀씩), 우수상 4팀(각 부문별 2팀씩)을 선발한다. 수상작 중에서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총상금은 1천만 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CGNTV 웹사이트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75-9322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10월 15일부터 8주간 매주 토 오후 3시

가정사역본부에서 주최하는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름다운 동행은 10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온라인(Zoom) 실시간 강의 7회, 대면모임 1회(현장강의)가 이어진다.

아름다운 동행은 부부 코치와 지원자 세 가정이 한 조가 되어 부부

의 정서적 친밀감 장애와 갈등을 극복하도록 돕고, 창조 원리에 따르는 성경적 가정을 세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정서적 친밀감이 가득한 가정으로 리모델링을 원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5만 원(관련기사 12면).

문의: 010-9041-5538

S브릿지공동체, 가을 리트릿 다녀와

소통테니어 김수민 권사 강의

33세부터 44세까지 미혼 청년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S브릿지공동체’가 지난 10월 1일(토) 가평 필그림하우스로 가을 리트릿을 다녀왔다. S브릿지공동체 가을 리트릿에서는 소통테니어로 알려진 김수민 권사(동대문중앙공동체, 라온위즈 대표, 칼럼니스트)가 ‘스피치’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김수민 권사는 설득화법 3종,

갑질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남녀언어 차이, 이미지 관리, 소리 언어와 표정 언어 등을 설명하면서 소통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화 ‘광해’, ‘킹스 스피치’ 등의 자료를 활용한 실제적인 강의와 사랑의 5가지 언어 파악, 배우자 선택 기준에 대한 강사 본인의 간증이 참가자들에게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 정현주 기자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 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2일(화)부터 18일(월)까지 6박 7일로 이스라엘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010-4902-1022)로 하면 된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에서는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구약성경, 사복음서, 중동전쟁사, 초기의 로마 황제, 헤롯왕조의 흥망, 유대인의 자녀 교육 등을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한다. 문의: 010-4902-1022

통일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통일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



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구글폼(QR코드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이스쿨 또는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등록할 때는 ‘이름, 소속, 출생년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회비는 교재비 포함 2만 원. 선착순 청년 20명은 회비 면제. 문의: 010-4337-5927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은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 청소년반은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및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 02-793-9686, 010-4548-1522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1차 참가자 교육 열려

10월 27일 2차 참가자 교육 서빙고 비전홀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1차 참가자 교육이 지난 6일(목)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렸다. 1차 참가자 교육은 오병규 장로 대표기도, 이정한 목사 설교, 봉사 일정 및 내용 안내, 중보기도, 팀별 모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미야자키 지역 설명, 봉사 일정 및 내용, 화관 및 선물패킹 방법 등도 배웠다.

이날 이정한 목사는 ‘기적의 현장

에 있으려면’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이 기적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참가자 교육은 10월 27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참가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문의: 02-570-7415



Love Sonata - 미야자키 기 · 도 · 제 · 목

- 10월 10일(월) 영광과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러브소나타 되기를
- 10월 11일(화) 미야자키 교회에 영적 부흥과 다음세대가 일어나도록
- 10월 12일(수) 한일 준비위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준비하도록
- 10월 13일(목) 이재훈 목사, 강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 10월 14일(금) 교회세미나, 리더십 포럼, 가스펠나이트가 평안하게 준비되도록
- 10월 15일(토) 출연전, 스테프, 봉사자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의 통로 되기를
- 10월 16일(주일) 낱사, 장비, 음식, 안전 등 모든 환경이 주의 손길 아래 있기를

‘시니어를 위한 아트테라피’

10월 20일~11월 1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상담실에서 ‘시니어를 위한 아트테라피: 나의 삶 돌보기’ (이하 시니어를 위한 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삶을 돌아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302호에서 열린다. 장옥빈 강사(온누리상담센터, 미술심리전문가)가 강의한다. 60세 이상 시니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4215-3675

■ 유아세례 간증



/ 황은영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혜준이를 만나기 전 두 번의 유산을 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던 때 첫 번째로 찾아온 아기가 유산되었고, 남편과 함께 한 40일 기도 이후 찾아온 아기도 심장이 멈췄다. 심장이 멈춘 아기를 꺼내는 수술을 해야 했다. 그때 생긴 상처로 나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수술을 해 준 의사가 원망스럽고, 유산되었을 때 보다 더욱 절망했다. 난임 분야에서 유명하다는 의사가 내게 자궁유착 제거를 권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시술로 인해 자궁에 천공이 생겨 또 수술을 해야 했다. 계속된 사고를 겪으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인데 왜 나에게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실 계획이 없으신데 내 욕심으로 아이를 구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다시 아기를 주셨다. 하지만 유산 경험과 자궁 과열의 위험이 있던 나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다. 아기가 건강하지 불안할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태중의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기를 기도했다. 출산 당일, 태반이 자궁에 붙어 있었기에 출산 중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미리 대비하였으나 실제로는 자궁이 얇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져 없어진 곳을 태반이 지탱하는 상태였고 내 몸 안의 장기들도 자궁과 붙어 있어 훨씬 위험한 수술이 되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나는 회복 중에 다시 출혈이 생겨 2차 수술을 받았다. 열흘 동안 중환자실과 집중치료실을 오가며 치료받아야 했다. 우리 아기는 태어나서도 아픈 엄마 때문에 온전한 축하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 기구의 도움 없이는 호흡을 할 수 없었던 나는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아기를 보러 갈 수 없었다. 종일 누워있는 내가 아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아기와 함께해 주시고, 세밀하게 돌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내게 “그 몸으로 임신이 된 게 기적, 아기가 출산 때까지 건강하게 자란 게 기적, 엄마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 태반 유착은 나에게서 위기였지만, 자궁이 반이나 없어진 상황에서 아기를 살리는 기회가 되었다. 내 몸이 가장 연합할 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가장 강한 힘으로 아기를 지켜주셨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은혜 혜’에 ‘기쁨 준’을 써서 아기 이름을 혜준이라 지었다. 혜준이가 하나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한다.

■ 맞춤형도집회 ‘아빠 캠핑 가자’ 참가자 간증



/ 이규민 성도(한강공동체)

참 희한한 일이 더 많아지기를

“으이구, 이 인간이 같이 거주기나 할까?” 아빠를 전도하고 싶은 초등학교 4~5학년 차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열린 ‘아빠, 캠핑 가자’(이하 캠핑)를 앞두고 요청자 기도모임에서 김숙경 소장님(사랑연구소)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웃음이 뺨하고 터졌다.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와 남편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새신자로 처음 만났는데, 둘 다 신앙이 자라기 전에 결혼해서 주님을 떠났다. 2018년, 나는 지인의 소개로 온누리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남편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번 캠핑을 신청했다.

남편이 싫다고 하면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강희창 팀장님과 통화하고 나서 캠핑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이 강해졌다. 남편에게 의향을 물어봤다. 단번에 “Nope!”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남편을 더 잘 섬기라는 성령님의 감동과 함께 남편이 마음을 열도록 성령님이 만져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맞춤형도사역팀에서 요청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한다. 참으로 많은 이들의 기도와 수고가 쌓여 24가정이 이번 캠핑에 참여했다. 모든 순서와 프로그램에서 사랑과 정성, 기도의

힘이 느껴졌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따뜻한 시간이었다.

신기한 것은 믿지 않는 남편들을 배려해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총지휘하신 것처럼 맞춤형도사역팀 스태프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겨준 덕분에 큰 감동이 있었다.

“참 희한하네.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에 우리한테 이렇게 잘 해주는 거지?”

캠핑 당일, 카라반으로 파곤한 수제차를 직접 가져다주시던 스태프를 보면서 남편이 한 말이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자신을 왜 이렇게 극진히 섬기는지, 다들 본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말까지 반납하며 왜 온 가족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지 궁금해 했다. 세상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나눔을 보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교회가 생각났다. 이번 캠핑에 참가한 아빠들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맞춤형도사역팀의 열정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희한하네’ 하며 궁금해 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 한국어선교학교 수료 간증



/ 서은주 자매(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한국어선교학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러브콜이었다. 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CGN TV를 통해서 온누리교회를 잘 알고 있고, <온누리신문>도 즐겨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온누리신문>에서 ‘한국어선교학교’ 모집 기사를 봤다. 감사하게 그 과정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여건이 잘 맞아서 등록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안했다. 한국어선교학교 과정이 미국 시간으로는 이른 아침에 진행되었지만,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많은 한국어 강사님들, 섬기는 스태프들, 차츰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한국어선교에 대한 지식공유를 해주셨다. 한국어 선교사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 소그룹 모임에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귀한 나눔이

있었다. 7기 한국어선교학교는 잊지 못할 축복이었다.

나는 유튜브 채널 ‘EJ 찬양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 한인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시청하신다. 앞으로는 이주민, 탈북민, 난민, 차세대 선교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열정이 한국어선교학교 과정을 수료하면서 생겼다. 예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한다. 옮겨온 선교지인 이주민들과 탈북민, 난민을 품고 섬기는 선교에 동참하며 계속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가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온누리교회를 통해 귀한 배움의 기회를 얻어서 참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국어 선교사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더욱 잘 배워서 한국어를 잘 가르치고 싶다.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내가 되고 싶다.

■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안은선 성도(광명공동체)

하우스(house)가 아닌 홈(home)으로

내가 파워임팩트 참가를 신청한 이유는 안수집사 임직을 위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물론 남편과 중학교 1학년인 셋째 아들도 함께하겠다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수업이 거듭되고 조원들의 나눔이 시작되면서 나를 돌아보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조별 나눔 시간이 짧아서 아쉬울 정도였다. 특히 강의에서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들이 아이의 몸 세포에 저장된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 4남매를 키우는 엄마로서 경험 많고, 나름 공부도 했던 나를 돌아보면서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셋째인 아들을 마냥 예뻐하면서 과잉 돌봄을 하지 않았나 반성해본다. 적절하게 좌절과 주도성을 허락해야 아이가 잘 발달함을 알면서도 간과한 부분이 많았음을 깨달았다. 조장님께서 해주신 조언들을 위한 기도와 격려, 지지의 말이 큰 힘이 되었고, 다시 일어서는

원동력이 되었다. 파워임팩트 교육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을 다시 관찰하고, 더 깊이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미성숙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더 성숙한 어른이자 주님 자녀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우리 가정을 하우스(house)가 아닌 홈(home)으로 바꾸도록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주인된 가정을 만들도록 내가 먼저 사랑으로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나의 힘으로는 안되지만, 주님의 은혜로는 가능함을 믿는다.

조장님이 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마음에 울림과 전율이 느껴지는 말씀이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하루를 살아내려고 한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장로칼럼

종 그리고 가치



박균명 장로
(수원캠퍼스, 장로
수련회 준비위원장)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절대가치(Absolute value)다. 주님 주신 ‘첫사랑’을 다시 발견하려는 몸부림 2022년 장로수련회 ‘첫사랑, 은혜의 시작’의 막이 올랐다.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예배와 접촉 모임이 중지되었다. 지난 3년은 암울하고 출구 없는 터널 같았다. 매년 개최되던 온누리교회 장로수련회도 굳게 닫혔다. 새해 들어 담임목사님과 서기장로님, 당회 운영위원회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장로수련회 개최를 결의했다. 코로나19 재유행 등 만약을 대비해 대면과 비대면 장로수련회를 병행해서 준비했다.

지난 3년 장로장립식이 두 차례 있었다. 2019년 장로회와 2021년 장로회 신입 장로님들은 장로수련회 경험이 없다. 선배 장로님과 만남의 고리가 사라졌던 지난 3년은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인이 속한 공동체나 사역팀을 중심으로 코이노니아(공동체)를 형성하는 수준이었다.

올해 장로수련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참여하셨다. 스태프를 제외하고 48개 조 편성을 했다. 특히 조장으로 섬겨주신 장로님들이 감동이 있었다. 48명의 조장님들을 2013년, 2015년, 2017년 장립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2009년 대선배 장로님 기수까지 세웠다. 이전 장로수련회 준비위원장을 하였던 조성현 장로님과 황병원 장로님께서도 기꺼이 조장으로 섬겨주셨다. 참 놀라운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힘을 얻었다.

장로수련회를 5일 남겨놓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끼 끼 식사를 했다. 금식하며 올린 기도문은 천사의 기도였다. 독선과 자기주장

이 강했던 우리의 마음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녹아내렸다.

2022년 장로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 보건 및 안전 담당 장로님 부부의 귀한 사랑의 섬김도 감사했다. 병원 진료를 뒤로 하고 달려와 예배 순서 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 담당 장로님과 챔버팀, 21장로회로 구성된 싱어팀의 섬김도 큰 은혜였다. 최상의 음질과 영상 송출을 진두지휘한 미디어방송 분과 담당 장로님은 정말 큰 힘이였다. 담임목사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설교 말씀과 임성빈 총장님의 ‘미래 세상을 만드는 교회’, 최성민 목사님의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의 응원’ 특강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수고하신 26명의 준비위원 장로님들과 실무적으로 종횡무진한 조병현 총무 장로님께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이번 장로수련회에서 깨닫은 키워드는 ‘종’ 그리고 ‘가치’였다. 장로수련회 준비위원 장로님들은 ‘종’과 ‘가치’를 모두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병국 장로님과 동기회원들의 헌신적인 종의 섬김이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발견하고 생업보다 장로수련회 준비에 열심을 쏟으신 준비위원 장로님들이 그랬다. 이번 장로수련회에 참석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좋았고, 유익했다고 하신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고 지난 간 곳에, 세상의 탐욕으로 채워진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 만난 첫사랑을 채우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달려간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권사칼럼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



성진양 권사
(수원온누리교회)

나는 올해 고등부 신입교사로 섬기면서 차세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예배당에 몸은 나와 있지만 예배 태도가 무너진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 차세대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고 무거워졌다.

‘다음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다음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임시 전쟁으로 찢든 차세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몇 개월 전부터 어머니들과 함께 모여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지난 9월 23일 장로수련회에서 차세대를 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장신대 임성빈 교수님, 최성민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다시 소망을 품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때 강의에서 복음이 공적인 진리임을 선포해야 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또 은혜를 받은 세대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셨다.

온누리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다. 그래서 개교회를 뛰어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다시 깨닫는다. 최성민 목사님은 다음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MZ세대의 개인주의와 현실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조직에 획일화되지 않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세대로 인정하고 응원해주라고 부탁하셨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는 중고등부 차세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교회학교 교역자와 교사라는 생각이 든다.

온누리교회에는 차세대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차세대를 잘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전임전도사가 통틀어 10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서빙고와 양재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캠퍼스에는 전임목사님 한 분과 파트전도사님들이 맡고 계신다. 안타까운 일이다. 함께 돕고 기도해야 할 문제다.

저출생으로 영유아 인원이 현저히 줄고 있다. 수년 내 중고등부 인원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중고등부 6년의 시간은 차세대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가족이나 공교육으로부터 인본주의적 세계관 교육을 받고 있는 차세대들이 일주일에 고작 30~40분 정도만 교회에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받고 있다. 정체성 혼란과 성정체성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는 현실에서 차세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역자는 두말 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전적으로 차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방하고, 성경공부 시키고, 주일 설교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전임교역자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기쁨, 자유, 평안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담당교역자와 교수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부모들은 교회학교에만 자녀를 맡기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야 한다. 차세대 교사가 많이 부족한데 교사로 헌신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힘껏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사 교육에도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을 다하고,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최영민 목사
(아름다운 동행 담당)

얼마 전 MBC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을 봤다. 그날 나온 부부는 ‘음소거 부부’라고 불리는 부부였다. 이 부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 그 상태가 무려 5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용건이 있을 때는 대화 대신 문자메시지로 소통했다. 그 상태로 아이 두 명을 양육하고 있었다. 음소거 부부를 오은영 박사는 ‘정서적 이혼상태’라고 진단했다.

나는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다. 그 부부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보였기 때

문이다. 물론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오늘날 수많은 부부들이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부부 간의 친밀감 장애로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다. 모든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친밀감을 소망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 부부 사이에 친밀감 장애가 발생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분주함이다.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위해서는 공유한 경험, 감정, 생각 및 성적(性的) 로맨스가 필요하다. 그런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둘째, 노력부족이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면 노력 없이 깊은 관계를 경험한다는 식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셋째, 이기심이다. 배우자와의 진정한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약점노출 그리

고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심이 이러한 희생을 방해한다.

넷째, 무지(無智)이다. 부부 친밀감의 본보기를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용서부족이다. 이는 친밀감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다.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쓴 뿌리가 축적되어 친밀감이 약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떻게 부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실제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바로 공동체다. 결혼생활을 다른 부부들과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부부관계는 내적 핵심이 되는 복음과 더불어 기독교 공동체라는 외적 맥락 모두를 필요로 한다. 공동체를 통해 배울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친밀한 부부를 만날 수

있다. 그 모델을 통해서 결혼생활의 로드맵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부부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예의를 배풀고, 함께 사역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부부 간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권면한다. 여러분의 결혼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누라고 말이다. 그곳에서 부부 친밀감 장애를 극복하고, 부부 친밀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정사역본부의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것이다.

2022 하반기 ‘아름다운 동행’

일정: 10월 15일~12월 3일(토) 오후 3시

방법: 온라인(Zoom) 7회, 대면 1회

문의: 010-9041-5538

“부부 간의 친밀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15~16절).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바’는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가족공동체입니다. 자녀 됨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친밀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친밀함을 배워야 합니다. 친밀함은 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정보와 지식의 목적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없고, 관계가 없으면 친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순예배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며,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친밀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순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친밀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 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집을 내려놓고 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나누십시오.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친밀함을 경험하는 가족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선교공동체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선교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17절).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필요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함께 상속받는 고난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온누리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선교단체, 문서선교 두란노서원, 미디어선교 CGNTV, NGO 더멋진세상, 전방개척선교 두란노해외선교회(TIM), 학원선교 한동대학교, 말씀 전하는 선교회 성경연장 교육(BEE),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선교단체, 가정회복운동의 아버지학교 등이 온누리교회 안팎에 존재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창립된 배경에 온누리교회 한 장로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최선수 장로님이십니다. 최선수 장로님은 치과의사로 강남에서 변창했던 병원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강남의 좋은 저택과 경기도 광주의 4만 평 농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최선수 장로님이 두란노해외선교회(TIM) 1호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120년 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182명의 자료를 정리해서 역사관을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선수 선교사님의 〈선교는 나의 축복이었다〉라는 책 후반부에 자신의 생애 후반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신나고 기쁜 일이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이었다.”

최선수 장로님이 선교에 헌신한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영성이고,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출발이었습니다.

또 기억하고 싶은 분은 김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72년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도미하셨습니다. LA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1977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곧바로 선교사로 헌신해 일본에서 교회 6개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국과 북한 사역을 준비하던 중에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2천/1만 비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선교 책임자로서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세계선교센터 등을 이끌며 온누리교회가 2천/1만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의 틀을 잡아주신 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으로 이라크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바로 이때에 교회가 개척되어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라크에 가셨습니다. 그때 지금 안산M센터를 섬기는 노규석 목사와 아부다비온누리교회를 섬기는 김도균 목사가 청년 때 유서를 쓰고, 김사무엘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김사무엘 목사님이 이라크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이라크에 가지 않았더라면 병을 얻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당시 이라크 여러 곳에서 급성 백혈병 환자들이 발생한다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을 얻고 3개월 치료를 받으시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또 한국에서 이라크로, 마지막 여정을 이라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계셨기에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2002년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90% 이상이 붕괴됐을 때 건강도 정말 안 좋으신 분이 그 땅에 가봐야겠다고 하셔서 몇 사람이 갔습니다. 폐허 속에 노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프간 관료들을 초청해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몸집이 커진 대형교회로 존재했다면 우리에게 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었을 것입니다. 감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2천 명 선교사의 비전, 미디어 선교의 사명, 전방개척선교의 사명 등이 주어질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해 왔던 온누리교회 역사의 발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공동체,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족공동체,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선교공동체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양재		■ 강남C BAE ESTHER 조복희 배명훈 최성건 오상기 박경열 이정애 김정애 장혜란 안태교 전정신 이인숙 홍성준 황성훈	고유정 정인아 김상기 이기훈 김정운 김효은	■ 도곡 김보연 김은진 김창연 오윤석 김학훈 구경용 남문주 송정하 노지아 정혜선 박승연 임혜진 박원준 이강신 박의진 김성수 서남서 석지영 오연석 허경숙 유지후 권오연 장범의 이기현 조예은 유신아	■ 강남D 고기은 이한성 김지현 송현진 박지연 허규원 송승일 최병윤 윤 순 윤상우 이시연 윤원재 이준범 이길탁 전경호 권혁은 최인홍 서원석	■ 강남E 김영신 윤성혜 정재영 기정민	■ 경기A 이상한 이봉걸	■ 과천의왕 강진구 박재형	■ 강남B 김선희 강경아 노용선 박수경 이지연 홍은경 이지영 박선향 이해람 장진아 정재은 장미라 최인호 김정훈 홍윤실 이혜운 홍진숙 이정현	■ 강남F 김영민 김태주 김재원 표은숙 박영자 성현주 서영훈 이규종 신재은 김정희 임라연 정효정 장윤성 전병곤 최경심 홍은경 홍윤재 최재훈 황미숙 박은신	■ 서초A 김경미 고소영 김복희 이미경 김희정 구운영 신혜경 한명희 이봉희 김은정 정영은 최차영 조정국 전심원	■ 서초B 구본재 최성구 김경희 김지혜 김상협 안상욱 도순희 이현주 박서빈 이경화 박은미 노혜선 유지현 방혜영	■ 서초C 이시우 조진호 이재운 김현지 이현정 김미은	■ 서초D 김동은 박정은 백철호 김화선 양정환 엄주길 양호승 김선민 이정애 명소연 정규영 강주식 정미영 한경원 최혜정 정문선 하주영 우성제	■ 송파A 김미진 황지영 류영찬 김근환 박명희 서현진 선정민 서희순 설동열 이정화 엄성용 정지석 윤종희 윤길자	■ 송파B 신영민 백봉호 양은실 최지훈 최준호 박승병	■ 양재A 김광영 유수경 김은경 신혜원 김진원 류미희 박경철 천수연 박현신 심형미 서주영 김행근 이수인 박영숙 이형석 이용석 전연옥 정순일 최정숙 하영순	■ 양재B 손지희 송애영 정승원 박순호	■ 푸른누리 신영호 이승표 이수진 최문실 조광현 민중근	■ 하나	■ Bridge33+ 김연정 이주화 민유원 김태현 우근영 김선옥 최수진 지은채 최진국 김현진	■ Harmony 홍영환 박준석	■ Point5 김혜림 최은비 유세원 신주연 이윤아 정유나 이진섭 안정혁 정남규 임 면 허선영 이주연 황중현 한영우	■ 여호수아 구은혜 박성자 권투시아임예진 권여리 이진아 권유나 전해진 김동욱 이어령	김민지 안지영 김영범 박도형 김예린 양미화 김현주 채선희 박소연 오혜란 박정원 손현진 반젤라 이혜진 방성주 김선호 안혜은 이미희 안다정 홍원미 양서연 임선옥 오종규 이광순 우지민 민연숙 이민지 이호영 이시은 정선애 이예은 이혜경 이예주 곽 썸 장수환 전봉수 채우리 오영은 함서호 김윤희 함승미 김민아 홍성아 이호영 홍지예 김현진	신민주 윤가정 유경은 김선희	정가주 노지준 정자우 김은혜	■ J4U 이신재 심효무	지성주 유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10월 16일(주일) 양재 2부 예배
수료 대상자 오전 11시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예배대상자: 6월 9일~ 10월 4일 사이에 동반자가 양재캠퍼스 소속인 수료자입니다.

● 양재	송은영	김윤희	■ 이강현 목사반	홍인영	이경란	이은진
■ 이정환 목사반	강민영	김찬양	김소영	■ 이한규 목사반	이영경	임규민
방성준	김정미	김중엽	김유미	공석금	이명선	임명준
변병설	송정화	박도준	김정숙	김경미	이정표	김선미
성지혜	이경나	박미령	김태은	김성근	장재호	박은영
소재목	최문원	박소정	박경희	김재필	조남혜	성열화
성유진	한지숙	심윤지	박지은	김재형	차한수	양윤정
신승철	■ 윤마리아 목사반	유윤경	변금려	김희원	최희권	윤미아
심재원	김동현	이남정	서예나	류익희	홍정주	오세광
안창희	김세진	이숙인	양미령	민수정	■ 박동현 장로반	채수진
이상원	김예슬	한성범	오지희	송애련	곽윤선	
이승례		황연신	이정미	안혜민	김정현	
함유정		하유정	이지현	오희선	이 경	
		오주은	정지화	윤은주	이수향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뵘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집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삼촌은친구 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지부 164기 지원자 모집

일정: 10월 15일~11월 19일(매주 토 오후 2시 ~6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회비: 12만 원

접수: 아이스쿨

홈페이지 : www.father.or.kr

문의: 02-2182-9150, 010-3135-2865

제525기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지원 자 가정 모집

일시: 10월 15일~ 29일(매주 토 오후 2시~9 시, 10/22~23일은 1박 2일)

장소: 진새골 사랑의집(경기도 광주)

대상: 더 풍성한 행복을 원하는 부부

문의: 02-444-2212, 031-767-2776

제14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 대회 참가선수 및 각 캠퍼스회원모집

일시: 10월 29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장소: 국회의사당 둔치 운동장

대상: 온누리교회 성도 및 가족

문의:서빙고총무- 오명석 010-6470-7131

양재총무- 이범진 010-6891-6665

수원총무- 박민규 010-3753-4546

남양주팀장- 권오빈 010-5535-0119

대전팀장- 김성동 010-5454-9338

부천총무- 황근배 010-4727-5258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열린다 성경 스티디투어 참가자 모집

일시: 10월 12일(화)~18일(월)

장소: 이스라엘 현지

대상: 이스라엘 현지를 답사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성도

문의: 010-4902-1022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1.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학습 지는 받지 않습니다)

2. 운동화(사이즈 190-230)

3. 아이들의 공책, 필기 도구

4. 집에안쓰고가지고있는수건(욕실타월)

보내실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570-7469)

부 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 동

O2. 475. 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2부 11:30 본당

3부(프라미스) 14:00

3부 (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준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양 지

O31. 331. 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준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다음세대를 위한 '풍당' 신규 콘텐츠와 함께
믿음의 어린이로, 청년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하나, 어린이를 위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랑말랑 주나치

총 365편

어려운 성경을 쉽게 알려주는 말랑말랑 시리즈 2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의 365일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귀여운 캐릭터 말토리와 함께 만나보세요!

매일 새로운 회차 '풍당' 업로드!

둘,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풍당'만의 특별한 클래스



영리한 클래스

총 36편

세계관, 영성, 공동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청년 리더
들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전합니다.

매주 목요일 '풍당' 업로드!



▶ '풍당' 시청 안내

풍당 앱 fondant ▶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풍당 웹 바로보기 ▶ <https://www.fondant.kr/>

